

KB연구보고서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7년 2월

Contents

I. 1인 가구 성장과 현황	4
II. 1인 가구 생활 실태 현황	6
1. 1인 가구 생활 동기	6
2. 1인 가구 주거생활	7
3. 1인 가구 식생활	10
4. 1인 가구 일상생활	11
III.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인식	12
1. 1인 가구 생활의 장점과 걱정	12
2.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인식	14
3.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의향	15
IV. 1인 가구 금융 이용 행태 및 니즈	17
1. 1인 가구 금융상품 보유 현황 및 니즈	17
2. 1인 가구 카드 이용 행태 및 니즈	20
3. 1인 가구 채널 이용 행태 및 니즈	21
4. 1인 가구 세부 금융 니즈	22
V. 시사점	24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연구자 1인가구 연구센터 센터장 서정주(jungju.seo@kbfj.com) 연구위원 김예구(yeigoo.kim@kbfj.com)

본 저작물은 KB금융지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승인 없이 본 책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생활·소비·금융거래 행태 등 세부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는 KB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시장조사 전문회사를 통해 혼자 거주하며 본인 스스로 금융의 사결정을 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 조사지역: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조사대상: 연소득 1천 2백만원 이상 20~40대 1인 가구 1,500명

본 보고서에 제시된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는 시장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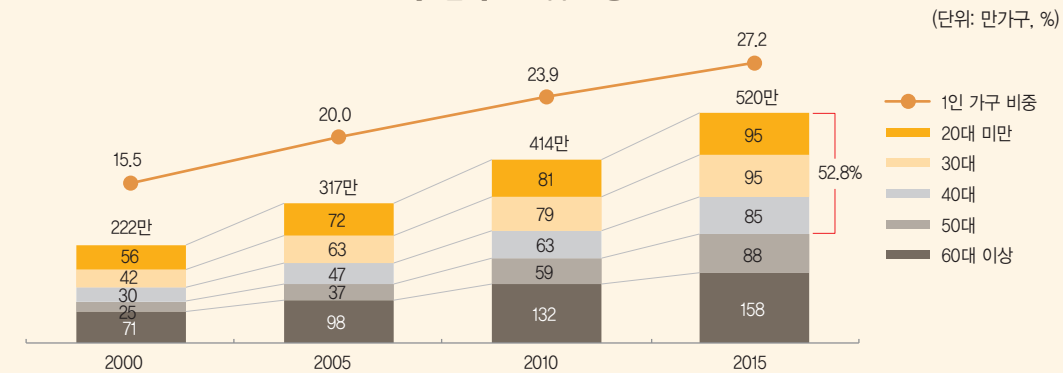
-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가 전체의 52.8%
 -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전체의 66.2%
 - 1인 가구 중 연소득 1천 2백만원 이상 비중은 49.4%이며 연소득 4천 8백만원 이상 비중은 30대 17.6%, 40대 16.6%
-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직장 때문이나 혼자 사는 편안함과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경, 가족으로부터의 독립도 많은 영향을 미침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5~10평 원룸이 일반적이며, 반전세를 포함한 전월세에 주로 거주하며(82.8%),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은 본인이 직접 마련(75.3%)
 - 하루에 2번은 직접 요리하거나, 반조리 식품 구입, 배달 등을 통해서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경향을 보이며,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혼자 하는 식사, 쇼핑, 운동 등에 익숙
- 혼자 살면서 '자유로운 생활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반면, '심리적인 안정',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큼
 - 경제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며,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비중은 86.0%
 -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본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독립'이라고 인식하며 혼자 사는 본인에 대해 '자유로운', '자립심이 강한', '여유로운' 등 긍정적 이미지 단어로 표현
 -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혼자 살 의향도 높은 수준
- 예·적금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높으며 거주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건강 및 노후를 위한 '암·연금·질병 보험'에 대한 니즈가 큼
 - 예·적금 상품 보유율, 향후 증가 및 신규 의향 등이 모두 높으며, 금융자산 중 안전자산 비중 76.7%
 - 10명 중 5명은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증가액의 사용용도를 '주택구입/전세자금'이라고 응답
 - 실손보험 가입률이 66.3%로 높고 향후 암보험/연금보험/질병보험 가입 의향이 높음
 - 10명 중 4명은 카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외식-쇼핑-편의점 할인 혜택에 높은 관심
 - 10명 중 4명은 향후 모바일뱅킹, 간편결제, 앱카드 이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
-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새로운 소비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객군 분류와 니즈에 맞는 영업 기회 창출 노력 필요
 - 1인 가구의 세분화된 금융 니즈에 대한 이해 및 타겟 고객군에 맞춤형된 금융 상품 설계 및 제안 필요

I 1인 가구 성장과 현황

-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40대 이하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52.8%를 차지

-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전체 가구 중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증가
- 2035년 1인 가구는 760만가구로 3가구 중 1가구(34.3%)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1인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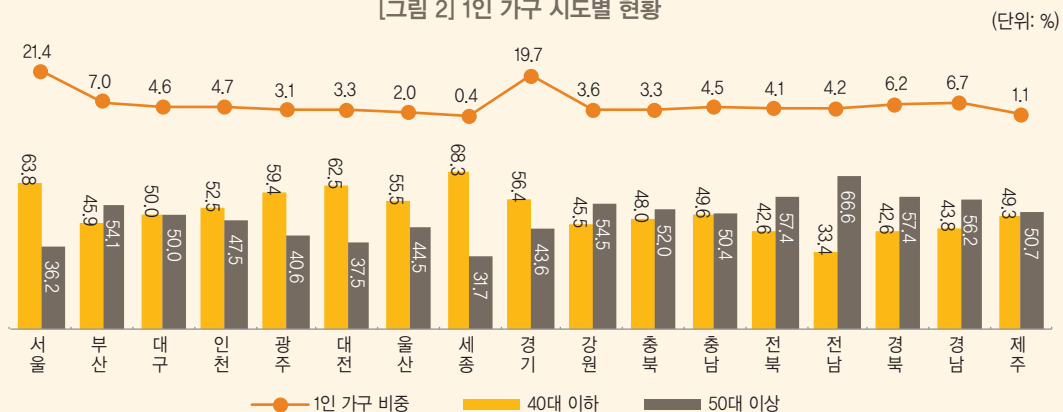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 지역별 1인 가구 비중은 서울 21.4%, 경기 19.7%, 부산 7.0% 순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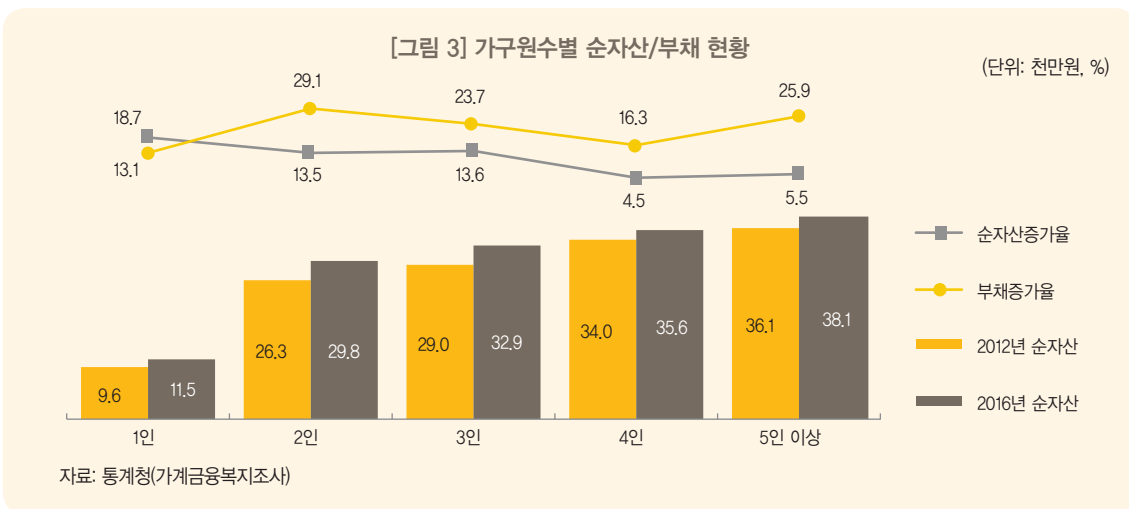
- 40대 이하 젊은 층은 세종(68.3%), 서울(63.8%),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50대 이상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전남(66.6%), 전북(57.4%), 경북(57.4%) 등에서의 거주 비중이 높음

[그림 2] 1인 가구 시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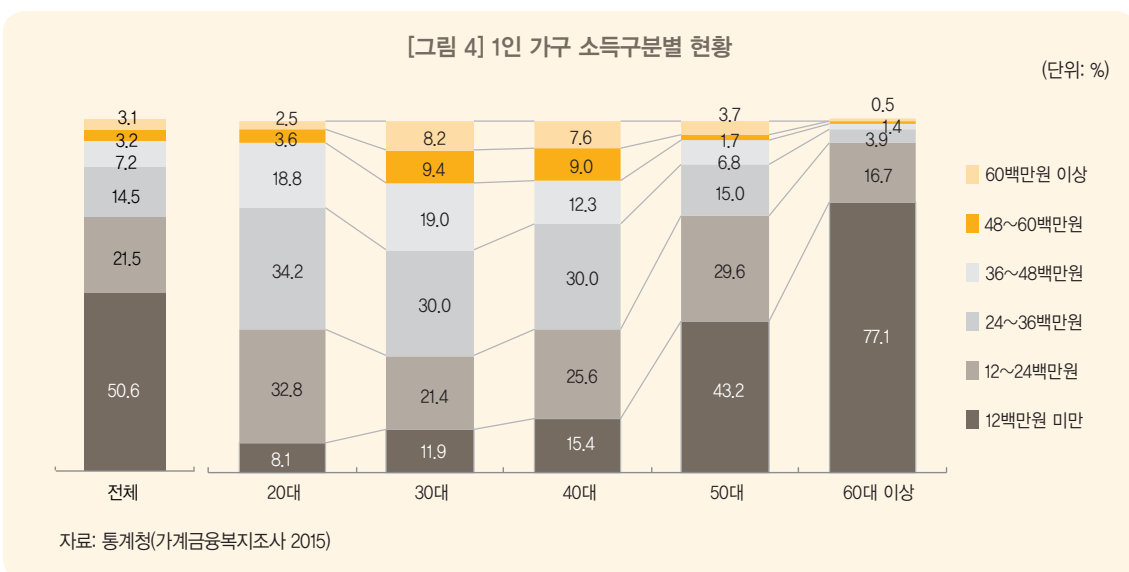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이 다인 가구 대비 낮은 13.1%를 보이며 순자산 증가율은 다인 가구 대비 약 5%p 이상 높음

- 1인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2012년 대비 18.7%로 2인 가구 13.5%, 3인 가구 13.6% 등 에 비해 높음
- 2016년 1인당 소득은 1인 가구 18백만원으로 2인 가구 1인당 17백만원, 3인 가구 1인당 19백만원과 비슷한 수준



■ 1인 가구 중 연소득 1천 2백만원 이상 비중은 49.4%로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

- 4천 8백만원 이상 고소득 비중은 30대 17.6%로 가장 많고, 40대 16.6%, 20대 6.1%순이며 1천 2백만원 미만 저소득 비중은 50대가 43.2%, 60대 77.1%로 높은 편임



II 1인 가구 생활 실태 현황 (20~40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1. 1인 가구 생활 동기

- 혼자 살기 시작한 주된(1순위) 이유는 ‘학교 및 직장 때문’이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1+2순위)인 비중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혼자 산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24.6%)보다 남성(35.7%)이 높으며 남성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함
 - 20대 1인 가구는 ‘학교 및 직장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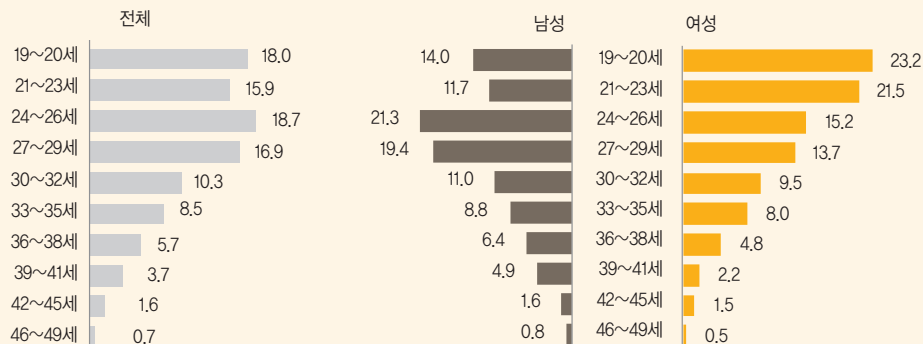
[표 1] 혼자 사는 이유

항목(%)	전체		연령별(1+2순위)		
	1순위	1+2순위	20대	30대	40대
학교/직장 때문에	35.7	49.5	71.6	49.3	20.3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29.7	63.7	60.1	62.9	70.2
마음에 드는 배우자/동반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10.9	30.9	15.6	33.6	46.1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서	10.3	24.9	23.2	27.3	22.3
경제적인 이유로	5.5	14.9	13.6	13.6	18.9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4.5	10.9	12.8	9.4	11.5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가 되어서	2.9	3.4		2.5	9.7

- 학교 선택과 직장 선택 시점인 20세와 26세 전후로 혼자 독립하는 비중이 높으나 30대 중반 이후 독립하는 비중도 20.2%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은 24~29세에, 여성은 19~23세에 혼자 살기 시작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혼자 살기 시작한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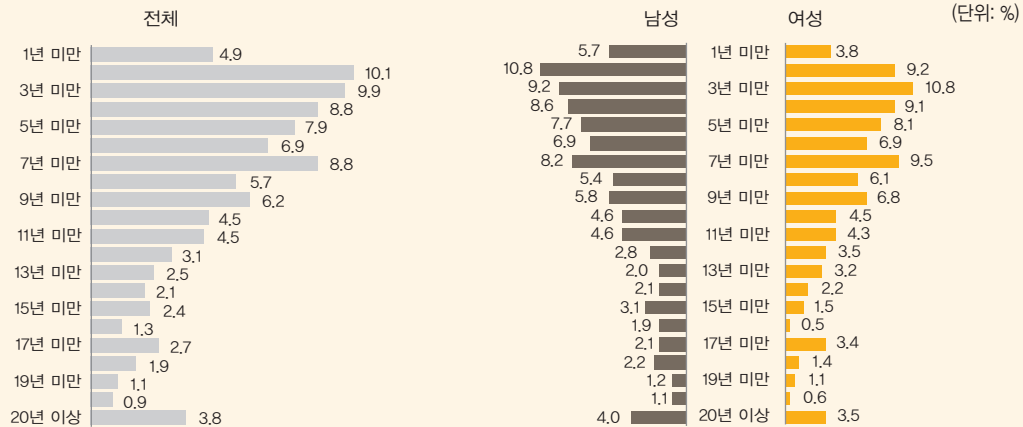
(단위: %)



■ 학교 졸업, 취업, 결혼 등으로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약 7년 또는 9년을 기점으로 가구 유형에 변화가 나타남

-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남성 27.1%, 여성 25.2%로 4명 중 1명은 10년 이상 1인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혼자 살아온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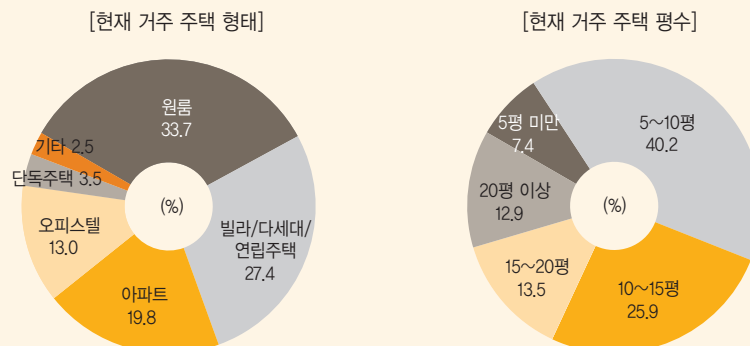


2. 1인 가구 주거생활

■ 1인 가구는 현재 5~10평의 원룸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가장 대중적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는 원룸이 33.7%로 가장 높으며, 빌라/다세대/연립주택 27.4%, 아파트 19.8%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평수는 5~10평 규모가 40.2%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넓은 평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짐
 - 40대의 경우, 10~15평 규모의 주택 거주가 26.1%로 가장 높고 30평 이상 거주 비율은 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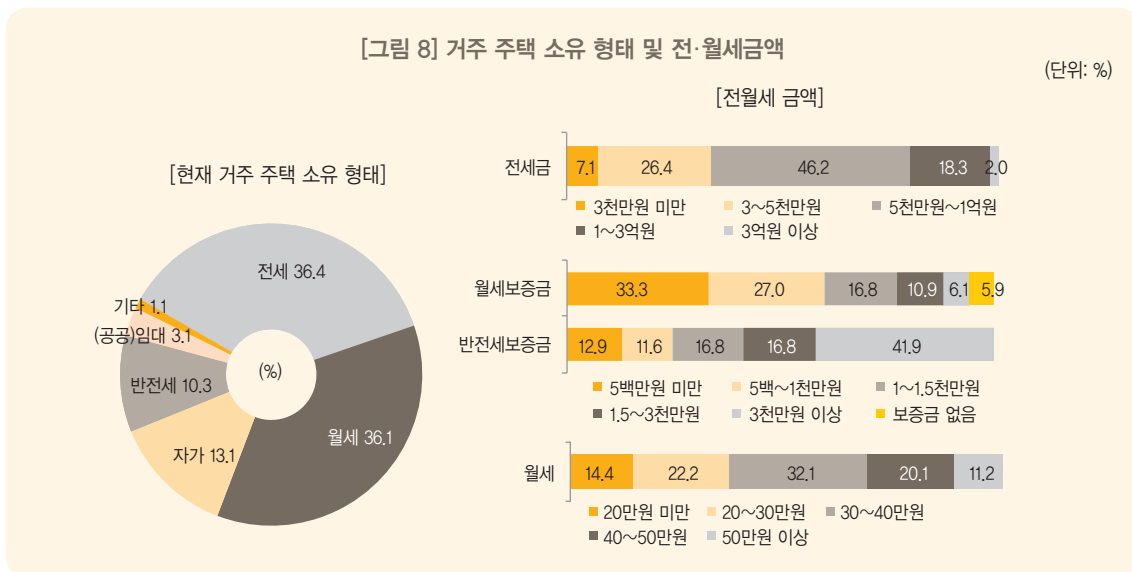
[그림 7] 거주 주택 형태/평수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13.1%이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비중이 42.8%로 가장 높음

- 전세금 규모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46.2%로 가장 높으며 3~5천만원 26.4%, 1억원 이상 20.3% 순

– 월세는 20~40만원이 54.3%로 가장 높으며, 40만원 이상 31.3%, 20만원 미만 14.4% 임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본인의 자금 또는 대출을 통해 직접 마련하는 비중이 75.3%로 가장 높으며, 연령 및 연소득이 높을수록 자립적으로 거주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련’했다는 비중이 58.3%, ‘대출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다’는 비중이 17.0%이며, 부모님의 도움 (30.5%)이나 형제/자매 등의 도움(3.2%)을 받아 마련하기도 함

[표 2] 거주 주택의 전세 및 월세보증금 마련 방법

(중복선택, %)	전체	연령별		
		20대	30대	40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련	58.3	42.1	62.0	77.8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음	30.5	47.7	25.0	13.2
대출을 받음 (본인이 이자 부담하고 있음)	17.0	17.8	18.9	11.3
형제/자매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음	3.2	3.2	3.4	2.7
지인 등 주변에서의 도움을 받음	1.4	0.9	1.7	1.6
기타	0.6	0.9	0.5	0.4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선택시, 학교·직장과 거리 및 가격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나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 주변 환경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

- 현 거주 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학교/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53.0%(1+2순위)로 가장 높으며, ‘전세/월세 등이 저렴해서’인 비중이 46.9%임
-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이 편리해서’,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이 좋아서’, ‘가족/지인과 가까이 거주하고 싶어서’ 등의 비율이 높아짐

[표 3] 거주 주택 선택 사유

항목(%)	전체		연령별(1+2순위)		
	1순위	1+2순위	20대	30대	40대
학교/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36.4	53.0	61.8	53.8	39.5
전세/월세 등 저렴해서	24.3	46.9	46.9	49.0	43.0
교통이 편리해서	15.9	38.8	37.3	38.1	42.1
단지 규모, 위치 등 주변환경이 좋아서	9.8	25.4	23.9	24.2	29.8
공원,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이 좋아서	6.8	20.3	17.7	20.7	22.9
가족/지인 등과 가까이 거주하고 싶어서	5.5	12.4	10.2	10.3	19.5

■ 거주 주택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수집하는 비중이 69.7%(1+2순위)로 가장 높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부동산 전문앱의 활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령이 높을수록 지인, 포털사이트, 부동산 전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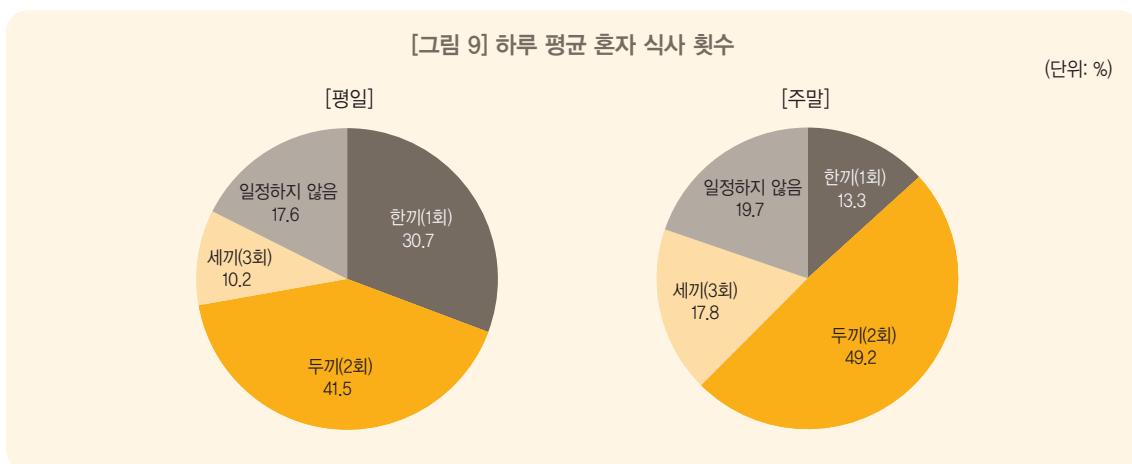
[표 4] 거주 주택 정보 획득 채널

항목(%)	전체		연령별(1+2순위)		
	1순위	1+2순위	20대	30대	40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44.7	69.7	70.8	68.3	70.8
직방/다방 등 부동산 전문 앱을 통해서	16.1	34.3	51.2	30.4	19.5
친구/동료/지인을 통해서	15.1	31.3	26.9	29.2	41.5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11.0	27.4	19.0	33.1	27.5
부동산 전문 사이트(부동산114 등)를 통해서	6.5	19.4	16.2	18.6	25.2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4.2	10.2	10.0	12.3	6.3

3. 1인 가구 식생활

■ 1인 가구는 평일 및 주말 모두 하루 평균 아침, 저녁 등 두끼를 혼자 식사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평일 및 주말에 하루 두끼를 혼자 식사하는 비중은 각각 41.5%, 49.2%로 가장 높으며, 주말 세끼를 모두 혼자 먹는 비중은 17.8%임



■ 혼자 식사할 때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경우가 45.3%(1순위)로 가장 높으며, 반조리 식품 구입이나 음식 배달 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주로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1+2순위)은 ‘직접 요리’하는 비중이 62.1%, ‘반조리 식품을 사서 먹는’ 비중이 32.7%,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비중이 31.2%임
- 연령이 높을수록, 하루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낮을수록 음식 배달 비중이 높아짐

[표 5] 혼자 식사 방법

항목	전체		혼자 밥 먹는 횟수(1+2순위)		
	1순위	1+2순위	1회	2회	3회
밥을 직접 해 먹는다	45.3	62.1	53.8	62.9	70.8
학교/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14.4	26.8	29.1	27.2	27.0
반조리 식품을 사서 먹는다	12.2	32.7	34.7	31.2	28.8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다	10.9	31.2	27.1	33.9	26.6
음식점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	8.2	20.8	24.1	20.7	20.6
도시락/샌드위치 등을 사서 먹는다	6.6	19.0	23.1	17.3	20.2
가족/지인/친구와 음식점에서 해결한다	2.3	6.7	6.5	6.5	5.6

4. 1인 가구 일상생활

- 1인 가구 2명 중 1명은 혼자 하는 식사, 쇼핑, 운동 등에 익숙하며, 향후 혼자 국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남

- 혼자 하는 국내,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익숙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24.3%, 17.8%로 다른 활동 대비 낮은 수준이나 향후 1년 내 혼자 해보고 싶은 활동은 국내여행 48.9%, 해외여행 56.3%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혼자 하는 쇼핑, 운동, 문화생활, 취미 활동 등 생활 전반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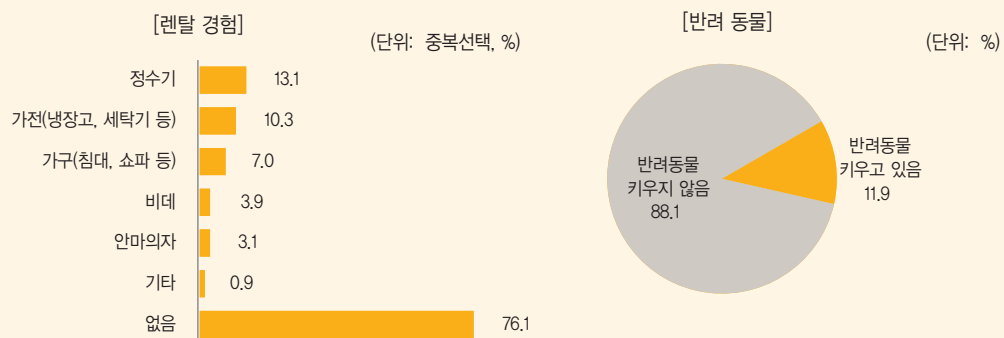
[표 6] 현재 익숙한 활동 및 향후 희망 활동

항목(%)	현재 익숙한 활동			향후 1년내 희망활동
	전체	성별		
		남	여	
혼자 식사하기	<div><div></div></div> 77.2	<div><div></div></div> 77.5	<div><div></div></div> 76.8	<div><div></div></div> 8.3
혼자 쇼핑하기	<div><div></div></div> 67.6	<div><div></div></div> 60.8	<div><div></div></div> 76.5	<div><div></div></div> 9.1
혼자 운동하기	<div><div></div></div> 46.9	<div><div></div></div> 43.5	<div><div></div></div> 51.5	<div><div></div></div> 19.7
혼자 문화 생활하기	<div><div></div></div> 41.0	<div><div></div></div> 35.9	<div><div></div></div> 47.6	<div><div></div></div> 23.1
혼자 취미 활동하기	<div><div></div></div> 38.7	<div><div></div></div> 33.6	<div><div></div></div> 45.3	<div><div></div></div> 21.8
혼자 술먹기	<div><div></div></div> 38.3	<div><div></div></div> 40.3	<div><div></div></div> 35.6	<div><div></div></div> 9.1
혼자 국내 여행가기	<div><div></div></div> 24.3	<div><div></div></div> 27.4	<div><div></div></div> 20.3	<div><div></div></div> 48.9
혼자 해외 여행가기	<div><div></div></div> 17.8	<div><div></div></div> 16.8	<div><div></div></div> 19.0	<div><div></div></div> 56.3

- 4명 중 1명은 정수기, 가전, 가구 등의 렌탈 경험이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은 11.9%임

- 1인 가구 중 23.9%가 생활용품 렌탈 경험이 있으며, 정수기 렌탈 경험이 있는 비중은 13.1%, 가전 10.3%, 가구 7.0% 순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비중은 여성 1인 가구 중 16.0%로 남성 1인 가구 중 8.7%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10] 렌탈 경험 및 반려동물 키움



III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인식 (20~40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1. 1인 가구의 장점과 걱정

- 1인 가구는 혼자 살면서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및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장점으로 꼽는 비중이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부양 부담이 없음’과 ‘경제적 여유’를 장점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짐

[표 7] 혼자 사는 장점

항목(%)	전체		성별(1+2순위)	
	1순위	1+2순위	남	여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	54.5	84.4	81.0	88.8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	28.6	75.9	71.1	82.0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부양 부담 없음	5.0	12.4	14.0	10.3
경제적 여유	4.4	11.6	15.9	6.0
직장/학업 등의 몰입	4.2	9.7	11.4	7.5
가사일이 적어서	3.2	5.9	6.2	5.4

- 1인 가구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 등 심리적인 요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가 높음
 - 남성은 ‘외로움 등 심리적인 요소’와 ‘건강’, ‘식사 해결’ 등에 대한 걱정이 크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전/위험’ 및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

[표 8] 현재 걱정 요인

항목(%)	전체		성별(1+2순위)	
	1순위	1+2순위	남	여
외로움 등 심리적인 요소	23.1	46.2	52.8	37.6
안전/위험 요소	19.0	34.4	19.3	54.1
건강	17.3	36.3	40.2	31.3
식사 해결	15.1	28.3	37.0	16.9
안정적인 직업	13.5	22.7	18.3	28.6
주거 및 생활환경	8.1	21.2	19.3	23.7
주위로부터의 시선	3.3	8.7	10.8	6.0
없음	0.5	0.5	0.5	0.6

■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주거 안정과 노후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걱정요인(21.7%, 1순위)이라고 응답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소득이 낮을수록 전세·생활·결혼자금 마련에 대해,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노후·질병/재난 대비 자금 마련 등에 대한 우려가 큼

[표 9] 경제상의 어려움

항목(%)	전체		성별(1+2순위)	
	1순위	1+2순위	남성	여성
주택 구입자금 마련	21.7	37.1	40.9	32.1
노후자금 마련	18.2	36.5	30.5	44.2
결혼자금 마련	15.7	31.3	35.6	25.7
전세자금 마련	13.1	23.3	19.9	27.8
생활자금 마련	10.3	22.7	21.8	23.8
부채상환	6.9	10.7	11.2	10.1
질병/재난대비 자금 마련	4.7	13.1	10.5	16.4
여가자금 마련	2.5	10.1	10.6	9.4
사업자금 마련	1.9	5.1	8.0	1.2
교육자금/ 유학자금 마련	1.1	2.4	2.8	1.8
없음	3.7	3.7	4.0	3.4

■ 1인 가구는 안전 측면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큼

- 혼자 살면서 ‘응급상황에서 구급 활동’에 대해 걱정하는 비중이 66.1%(1+2순위)로 가장 높으며, ‘주거 침입에 대한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비중이 37.1%임
- 여성이 ‘응급상황에서의 구급 활동’에 대해 걱정하는 비중은 59.6%로 남성 19.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표 10] 안전상의 어려움

항목(%)	전체		성별(1+2순위)	
	1순위	1+2순위	남	여
응급상황에서의 구급활동	44.3	66.1	64.9	67.6
주거 침입에 대한 안전	20.1	37.1	19.9	59.6
부재시의 도둑/절도로부터의 안전	12.5	33.8	32.7	35.2
생활 부주의로부터 느낄 수 있는 안전	9.3	31.3	39.0	21.4
보행 등 동반자/보호자 부재에 따른 안전	4.0	11.3	12.5	9.8
없음	9.8	9.8	15.2	2.8

2.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인식

■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본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독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 ‘1인 가구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34.7%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19.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집에서라도 타인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는 비중은 7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1]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 인식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매우 그렇다

항목(%)		인식		
경제적 측면	대부분의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45.9	40.1	13.9
	1인 가구는 생활비가 절약 된다	36.9	39.0	24.1
생활적 측면	1인 가구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19.2	46.1	34.7
	집에서라도 타인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23.1	19.2	78.5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82.0	13.1	4.9
향후 전망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13.1	10.9	87.9
	1인 가구 늘어나면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52.1	34.5	13.5
	1인 가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28.2	47.8	24.0

■ 혼자 사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 ‘자유로운’, ‘자립심이 강한’, ‘여유로운’ 등의 긍정적 이미지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음

-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외로워 보이는’, ‘초라한’, ‘안쓰러운’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

[표 12] 혼자 사는 본인에 맞는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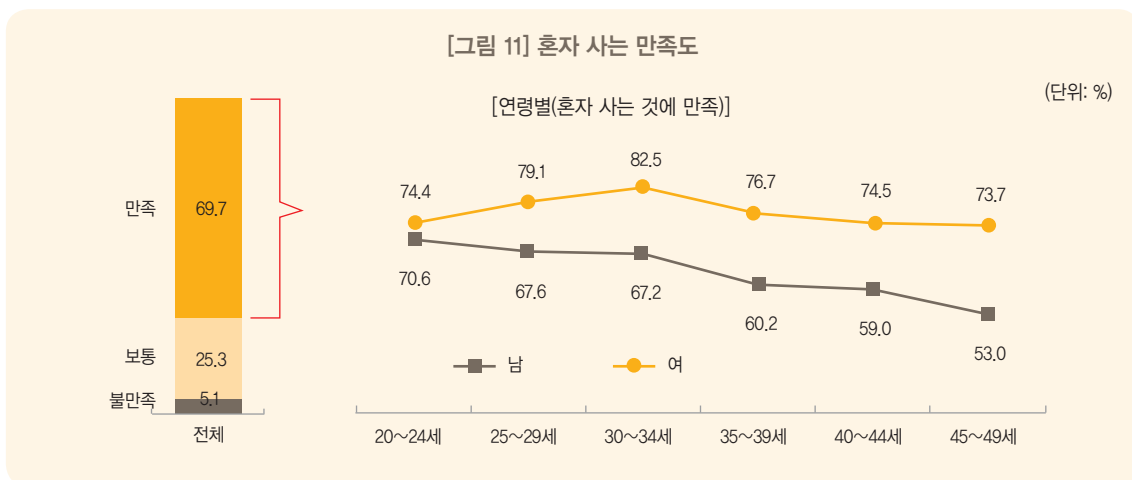
항목(%)		전체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1+2순위)	
		1순위	1+2순위	만족	불만족
긍정	자유로운	37.0	58.6	62.7	31.6
	자립심이 강한	17.3	32.8	35.9	18.4
	여유로운	11.3	28.5	30.0	13.2
	즐길 줄 아는	7.9	19.1	22.1	11.8
	당당한	5.1	11.4	11.9	7.9
	능력 있는	4.6	9.9	10.4	7.9
	부러운	1.3	3.1	3.1	1.3
부정	외로워 보이는	5.9	12.9	7.6	39.5
	초라한	1.2	3.3	1.6	15.8
	안쓰러운	1.1	3.2	2.0	15.8
	사회성이 부족한	1.1	2.6	2.3	2.6
	유별난	1.1	2.1	1.4	3.9
	이기적인	0.7	1.9	1.9	2.6
	한심한	0.7	1.3	1.6	5.3

3.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의향

- 1인 가구의 삶에 장점 및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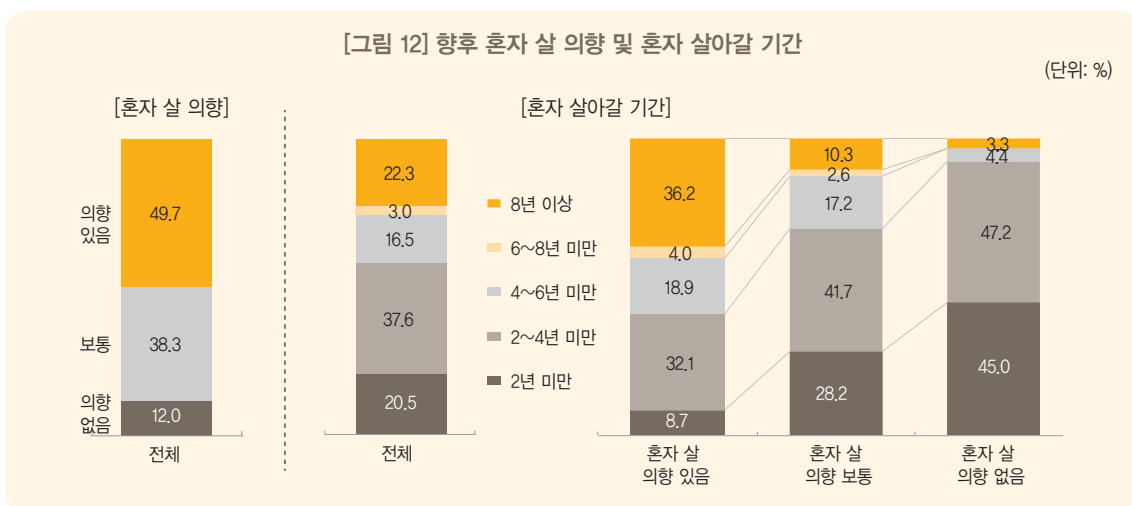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대 초반 여성이 82.5%로 가장 높음



-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9.7%이며, 여성(63.1%)이 남성(39.3%)보다 향후 혼자 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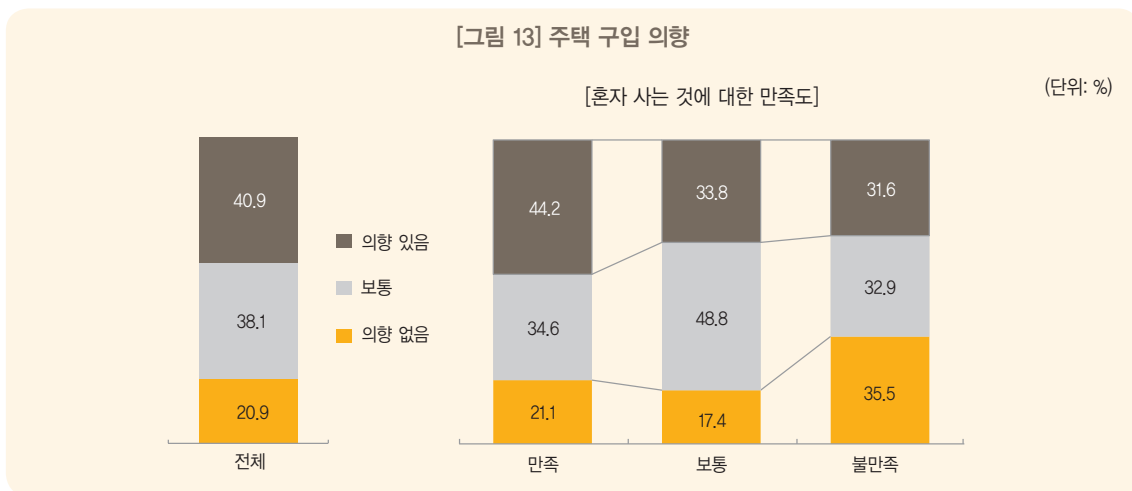
-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1인 가구 중 향후 8년 이상 혼자 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36.2%로 가장 높음

– 혼자 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4년 내에 가구형태 변화가 있을 비중이 92.2%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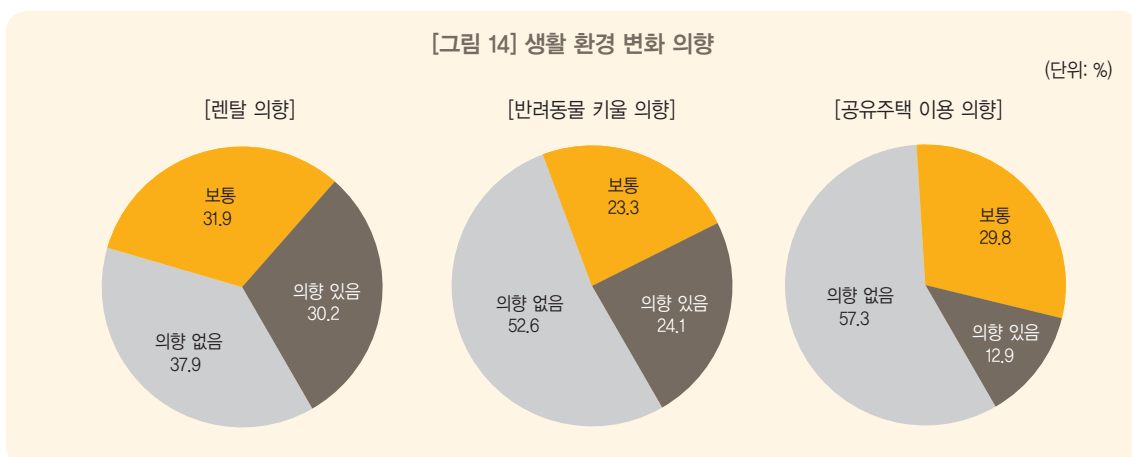
■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으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의향도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 중 40.9%가 향후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1인 가구 중 주택구입 의향이 있는 비중은 44.2%임
 - 향후 5년 이내(64.4%), 20대 후반~30대 초반(51.7%) 1인 가구의 주택 구입 의향이 높으며, 59.5%가 아파트 구입을 희망함



■ 1인 가구 중 향후 가구·가전 등을 렌탈할 의향이 있는 1인 가구는 30.2%,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이 있는 비중은 24.1%임

- 혼자 사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렌탈 의향 및 반려동물 사육 의향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개인 공간은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거실, 부엌 등을 일정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택(쉐어하우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1인 가구는 12.9%임



IV 1인 가구 금융 이용 행태 및 니즈 (20~40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1. 1인 가구 금융상품 보유 현황 및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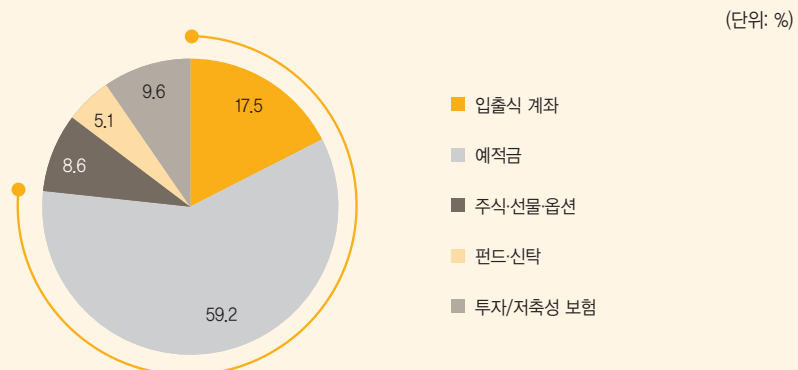
- 금융상품 중 예·적금 보유율이 가장 높고 향후 1년 내 자산 증가 및 신규 가입 의향도 예·적금 상품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예·적금’상품 보유율은 82.9%로 높으며 그 중 56.9%가 향후 1년 내 금액을 증가 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1인 가구 중 향후 신규 가입 의향이 있는 비중은 55.4%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예·적금 상품 다음으로 ‘투자/저축성 보험’ 보유율이 27.7%로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보유율은 낮으나 향후 신규 가입 의향은 높게 나타남

[표 13] 금융상품 보유 및 향후 신규 의향

(단위: %)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선물/옵션	투자/저축성 보험
보유율	82.9	15.6	2.6	22.7	27.7
자산증가 의향	56.9	29.1	51.3	38.7	29.4
미보유율	17.1	84.4	97.4	77.3	72.3
신규 의향	55.4	14.0	7.9	14.5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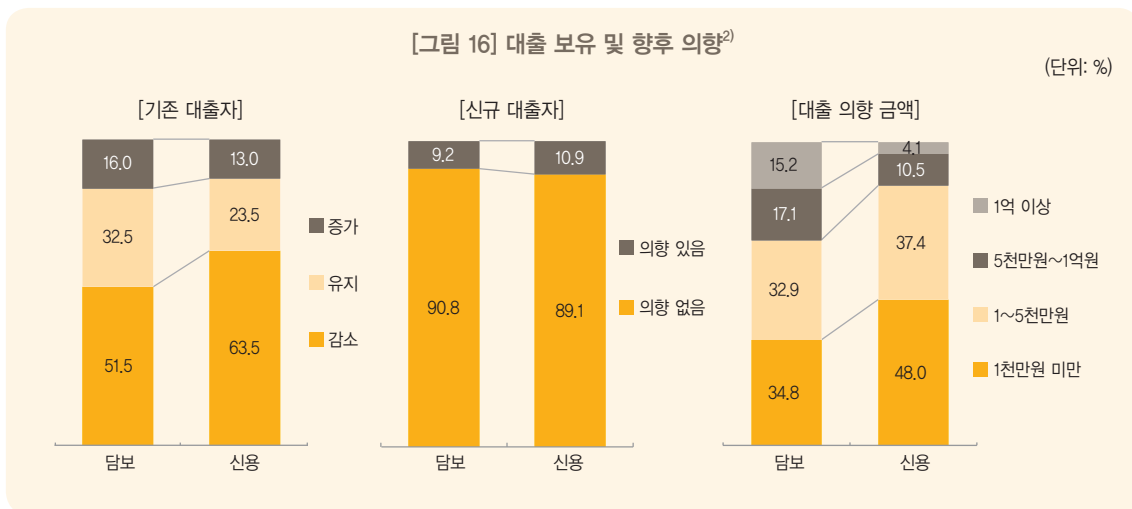
- 금융상품 투자금액 비중은 입출식계좌 17.5%, 예·적금 59.2%로 안전자산 비중이 76.7%를 차지
 - 투자/저축성 보험은 9.6%, 주식/선물/옵션 8.6%, 펀드/신탁 등 5.1%

[그림 15] 금융상품 투자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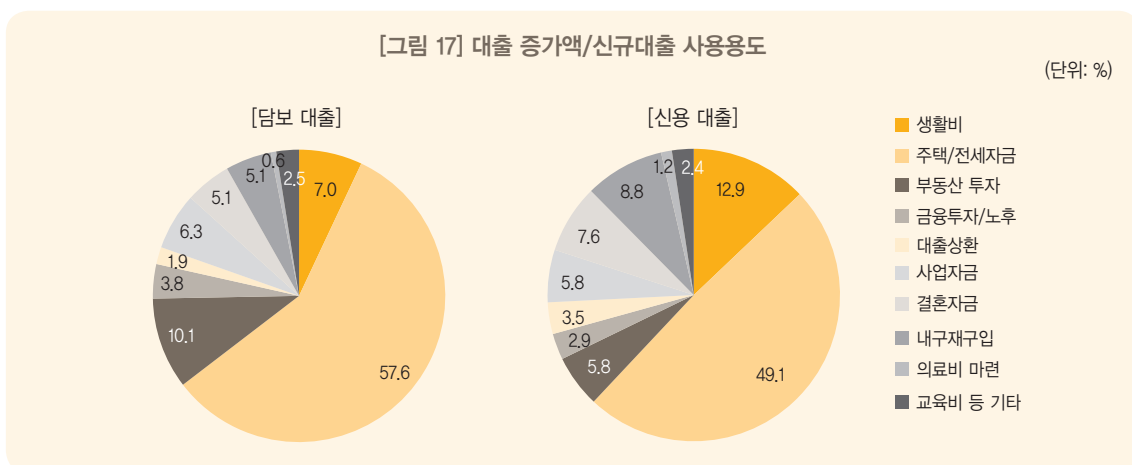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42.5%¹⁾이며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향후 대출을 감소시키고자 의향이 있는 가구가 50% 이상으로 나타남

- 향후 1년 내 대출 규모를 감소시키려는 의향이 있는 비중은 담보대출 보유자 중 51.5%, 신용대출 보유자 중 63.5%로 나타남
-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 중에서 향후 1년 내 담보대출을 신규로 받고자 의향이 있는 비중은 9.2%, 신용대출의 신규 의향이 있는 비중은 10.9% 수준임



■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 증가액의 사용용도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담보대출 가구의 57.6%, 신용대출 가구의 49.1%로 가장 높음

- 그 외 사용용도로는 담보대출은 '부동산투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이 있으며 신용대출은 '생활비', '내구재구입', '결혼자금' 등으로 상이함



1)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포함

2) 대출의향금액은 기존 대출자 중 대출 증가 의향자 및 신규 대출 의향자 기준

■ 1인 가구의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실손보험) 가입률은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률보다 높으며 향후 암보험/연금보험/질병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음

- 1인 가구의 보험 보유율은 81.5%이며 보험 가입 가구 중 실손보험 가입률은 66.3%,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률은 41.0%, 암보험 가입률은 39.9%임
-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있는 보험 상품은 자동차/운전자보험 외에 암보험 26.5%, 연금보험 22.7%, 질병보험 21.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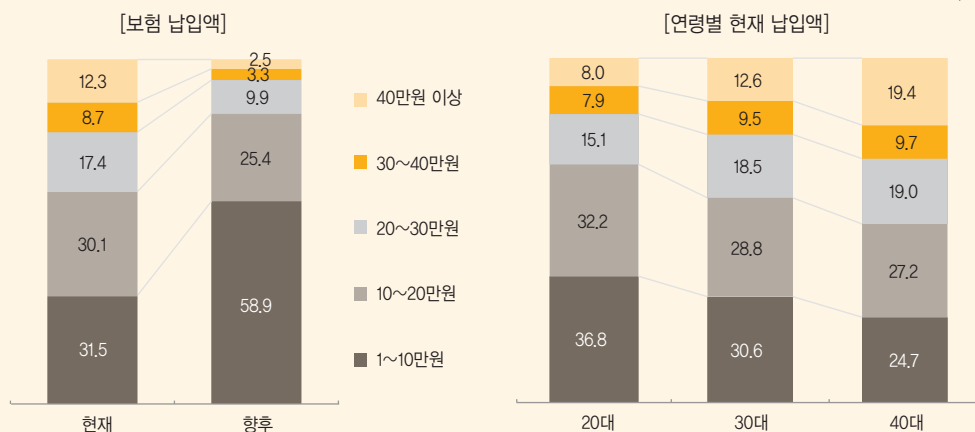
[표 14] 보험상품별 가입률 및 향후 의향

보험상품(%)	현재 가입률	향후 의향률
종신 보험	23.3	10.0
정기 보험	5.2	4.9
변액종신보험	6.7	2.9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66.3	20.9
암보험	39.9	26.5
질병(건강)보험	22.9	21.2
상해보험	25.3	14.0
연금보험	22.3	22.7
저축성보험	19.5	18.4
변액연금보험	9.6	3.0
자동차/운전자보험	41.0	26.9
화재/재물보험	5.8	3.5

- 현재 보험 납입액은 월 10만원 이상이 68.5% 수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납입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신규 및 추가 가입 의향이 있는 보험의 납입액은 월 10만원 미만이 58.9%로 가장 높으며, 10~20만원이 25.4%로 소액 보험 가입을 희망함

[그림 18] 보험상품 월별 납입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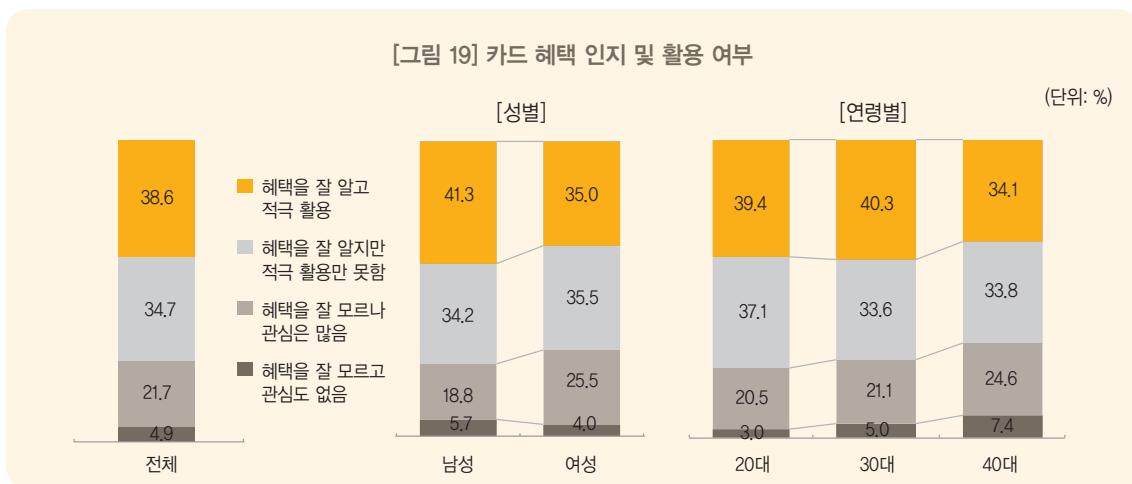


2. 1인 가구 카드 이용 행태 및 니즈

- 신용 및 체크 카드 혜택에 관심이 있는 1인 가구는 95%이며 쇼핑, 외식, 편의점 및 문화 생활 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카드 혜택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38.6%로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카드 혜택을 인지 및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카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관심은 많으나 혜택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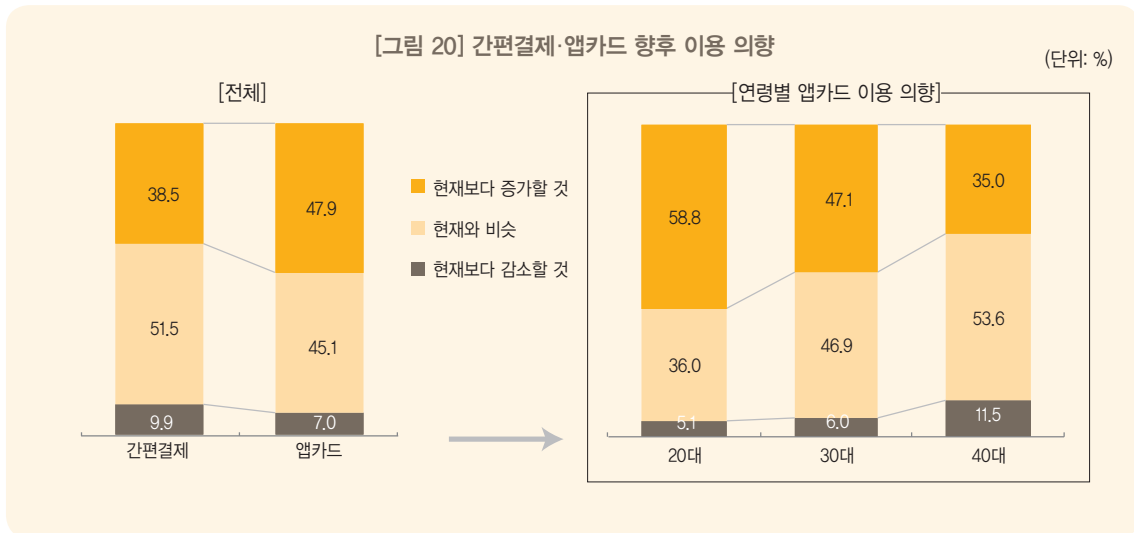
-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카드 혜택은 쇼핑 할인이 34.9%로 가장 높으며, 외식 할인, 편의점 할인에 대해서도 각각 15.7%, 12.5%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편의점 및 외식/커피 할인, 30대는 문화생활, 40대는 쇼핑 및 자동이체 할인 등의 혜택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임

[표 15] 선호하는 카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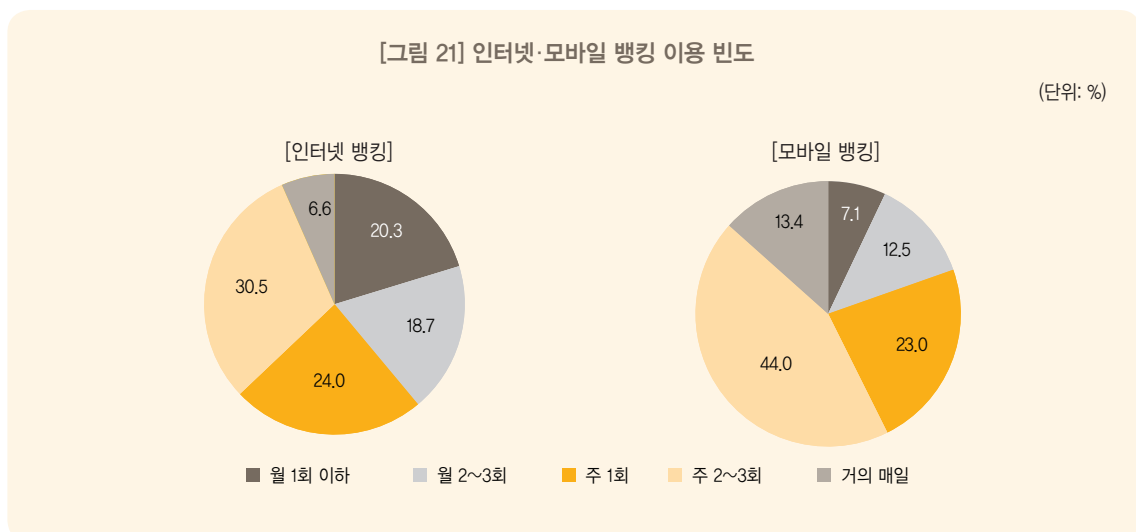
관심혜택(%)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쇼핑 할인	34.9	28.6	36.2	40.7
외식 할인	15.7	18.8	15.8	11.2
편의점 할인	12.5	15.8	10.7	11.5
문화생활 할인	12.3	11.5	13.2	11.5
자동이체 할인	11.3	9.4	11.1	14.3
커피 할인	4.7	7.0	4.3	2.6
해외이용 할인	2.1	2.6	2.1	1.4
미용/뷰티 할인	1.5	1.7	1.3	1.4
헬스/요가 등 할인	1.4	1.7	1.2	1.4
반려동물 관련 할인	1.1	1.7	0.9	0.9
교통비 할인	0.5	0.9	0.3	0.3

- 1인 가구는 간편결제 및 앱카드 이용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려는 의향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간편결제 보다 앱카드 이용을 증가시키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앱카드 이용을 증가하려는 의향이 높으나, 40대도 앱카드 증가 의향이 감소 의향 대비 3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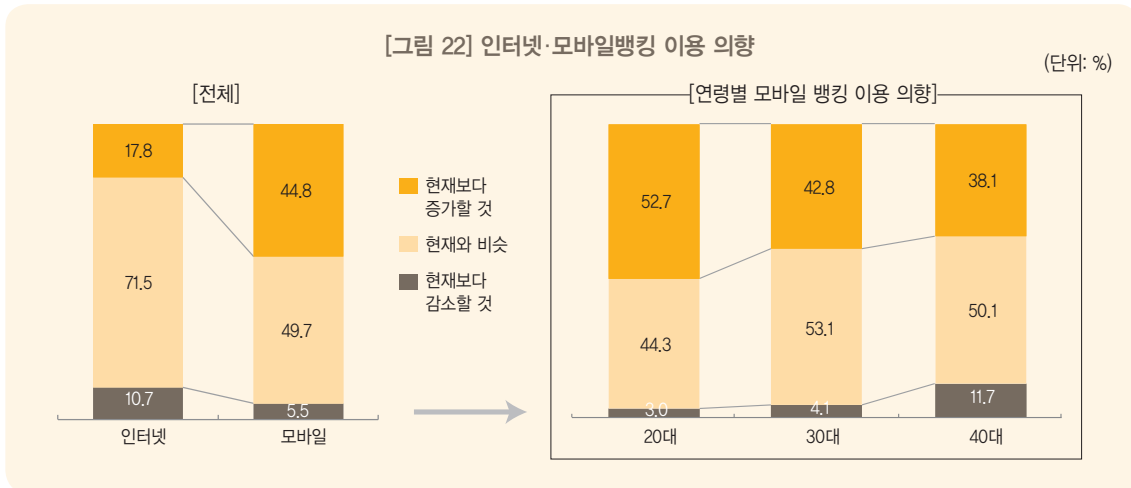
3. 1인 가구 채널 이용 행태 및 니즈

- 1인 가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바일 뱅킹을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중이 70%(20대 88.3%, 30대 77.4%, 40대 72.6%)를 상회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채널로 나타남
- 1인 가구 중 인터넷 뱅킹을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중은 61.1%이며, 모바일 뱅킹을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중은 80.4%임



■ 1인 가구는 연령에 상관 없이 향후 모바일 뱅킹 이용을 증가시키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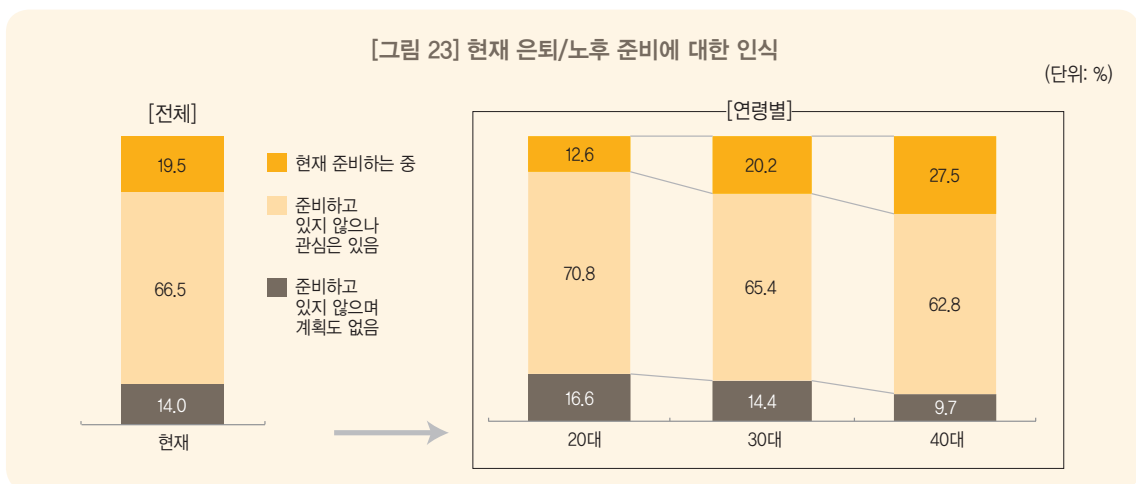
- 향후 현재보다 인터넷 뱅킹 이용을 많이 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17.8%인 반면, 모바일 뱅킹 이용을 많이 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44.8%임
- 연령이 낮을수록 모바일 뱅킹 이용을 증가하려는 의향이 높으나, 40대의 경우에도 모바일 뱅킹 이용 증가 의향이 감소 의향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4. 1인 가구 세부 금융 니즈

■ 1인 가구 10명 중 9명은 현재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은퇴 및 노후 준비’하는 비중은 19.5%이며, ‘준비하고 있지 않으나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6.5%
- 연령이 낮을수록 관심은 있으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으며, 은퇴 연령에 근접한 40대의 경우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 1인 가구 중 최근 1년간 은퇴 및 노후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비중은 86%이나 비 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은퇴 및 노후를 위해 취한 행동은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보다 ‘준비 방법을 검색’하거나, ‘가족/지인과 상의’를 해보는 등의 비전문적인 지식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 자금 계산’, ‘금융상품 가입’, ‘불필요한 생활자금 등 조정’ 등 구체적인 은퇴 및 노후 준비를 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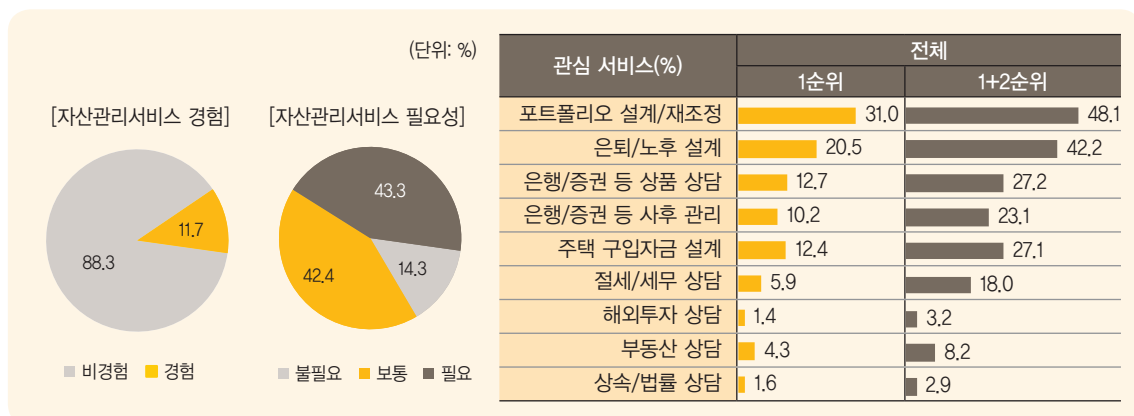
[표 16] 최근 1년간 은퇴 및 노후 준비 행동

준비 행동(% , 복수응답)	전체	연령별		
		20대	30대	40대
은퇴 후 필요 자금 계산	24.7	21.7	24.2	29.8
노후 활용 금융상품 가입	19.1	15.1	21.0	20.8
가족/지인과 은퇴 후 상의	25.0	28.6	22.0	26.0
인터넷 등 준비 방법 검색	27.1	26.2	28.4	25.4
불필요한 생활자금 등 조정	12.8	8.1	12.9	19.1
현재 준비 수준 평가(진단)	14.7	12.2	15.2	17.1
은행 등 금융전문가의 조언	7.7	9.6	7.3	5.8
은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3.9	3.2	4.4	3.8
기타	0.2	0.2	0.4	
없음	13.8	16.6	14.4	9.0

■ 1인 가구의 자산관리서비스 경험률은 낮으나, 자산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관리서비스 경험률은 11.7%이며,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3%임
-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및 재조정’ 서비스에 대한 관심(48.1%, 1+2순위)이 가장 높으며, ‘은퇴/노후 설계’(42.2%), ‘주택 구입자금 설계’(27.1%)에 대한 니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자산관리서비스 경험/필요성/관심 서비스



V 시사점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새로운 소비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국내 1인 가구는 2035년 760만가구로 전체의 3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학교 및 직장 선택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게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혼자 사는 편안함,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경,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등 자발적인 사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인 가구 중 앞으로 8년 이상 1인 가구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22.3%를 ‘비혼(非婚)’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8년 이상 혼자 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36.2%로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는 성, 연령, 소득, 혼인 상태 등에 따라 다른 생활 행태와 니즈를 가지며 다양한 니즈에 따른 세분화된 세그먼트 분류 및 분석이 필요함
 - 여성이 남성보다, 연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자금’ 및 ‘질병·재난 대비 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 주택 선택시 교통 및 단지규모, 위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1인 가구 유지에 대한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고객군별 특성과 니즈에 따라 각 산업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영업 기회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동산 중개소 다음으로 부동산 전문앱을 통한 부동산 정보 획득 의향이 높으며, 1인 가구 2명 중 1명은 향후 혼자 국내외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응답함
 - 향후 가전, 가구, 정수기 등 렌탈 의향이 있는 비중은 30.2%이며, 과거 렌탈 경험에 있는 경우 렌탈 의향은 41.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세분화된 금융니즈에 대한 이해 및 타켓 고객군에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및 제안이 필요함
 - 1인 가구는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안전, 건강, 주거침입 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은퇴 및 노후에 대해 관심이 높으나, 전문가의 도움보다는 비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상품 가입, 필요자금 계산, 보험 상품 가입 등의 전문적인 금융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으로 모바일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02-2073-7114

본 저작물은 KB금융그룹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승인 없이 본 책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